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조프란시스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선창: 박어거스틴 반주: 당현민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450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영광송 12쪽(C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집 전 자
주 하느님, 주님은 주님을 찾는 이에게 빛을 비추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1독서 아모 6:1상, 4-7 말 은 이
성 시 146편 다 함 께



- 알렐루야! 내 마음 주님을 찬양하리라.
○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
- 하느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분,
○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주시고
-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 |주시|다.
○ 앞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나
○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 시온아, 네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1디모 6:6-19 말 은 이
†복음환호송 집 전 자
†복음서 루가 16:19-31 집 전 자

설교 프란시스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433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361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가서 제자 삼으라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9월 28일)	다음 주일(10월 5일)
1독서	윤희진	백남진
2독서	이원주	박선희
대 도	권순호	김준우
다음주일 전례독서	하바 1:1-4, 2:1-4 시편 37 2디모 1:1-14 루가 17:5-10	
성 가	574 495 598 411	
복 사	최하현 장태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최용준 신부 백기은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5년 9월 28일 성삼 후 15주일 (연중 26주일) · 다해 · 녹색

제29-39호

부자와 라자로



오늘 복음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의 운명은 죽은 후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비유 속의 부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부유함 자체나 축재과정의 부정함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부자가 자기와 같은 시대와 사회를 살아간 이, 실은 자기 집 문간에서 신세를 지려던 거지 라자로에게 깊은 관심도 연민도 갖지 않은 무관심 때문입니다. 부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자비를 라자로에게 베풀어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총으로 잠시 누리게 된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은 '구렁텅이' 같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속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자도 라자로도 그저 제 팔자대로 살다 죽은 것인데, 하느님은 무슨 근거와 이

유로 그 둘의 팔자를 뒤바꾼다는 말씀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 못하는 건데, 라자로의 불행과 현재의 고통에 그 부자가 무슨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부자와 라자로 모두가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대로 사람답게 사는 일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자비가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둘째 독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1디모 6:7),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1디모 6:17)고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재물과 힘을 더 얻어서 이 세상에서 더 화려롭게 잘 지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차별없이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울리아나)

대한성공회 설립기념일 (9월 29일)

올해는 1890년 9월 29일에 대한성공회 초대주교 고요한 주교(Charles John Corfe)가 인천에 복음화의 발걸음을 내딛은 지 1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인천항에 도착하여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개화기에 신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선교를, 인천, 서울, 강화, 여주, 진천 등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선교초기부터 한국문화의 토양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고자 토착화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토착화에 바탕을 두고 한국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성당들이 지금도 강화읍, 온수리, 진천, 청주 등에 남아 있습니다. 1914년에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미가엘 신학원(현 성공회대학교), 1925년에는 수도자를 위한 성가(聖架)수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초기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신지체장애교육기관인 성베드로학교, 도시빈민지역 선교를 위한 나눔의 집 설립과 함께 각종 복지관 등 사회선교가 비약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965년 이천환 주교가 첫 한인 주교로 서품을 받았으며, 대한성공회는 서울교구와 대전교구로 발전적 분할을 하였고, 다시 1974년에 대전교구는 대전교구와 부산교구로 분할되어 대한성공회는 현재의 3교구 체제가 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9일에 '대한성공회 헌장 및 법규' 공표와 함께 세계 성공회 내의 35번째 독립관구가 되었고, 관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원(관구사무소)을 설치하여 하느님 나라의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관구 설립 33주년

성공회는 1890년 한국 땅에 전래하여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와 경쟁하기보다는, 존중하고 협력하여 훨씬 낙후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탓에 성공회는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한국의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 관할권 아래 단일 교구의 <조선성공회>와 3개 교구로 이뤄진 <대한성공회>로 있다가, 1992년 9월 29일 세계성공회의 관구 교회로 승격하여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성공회는 세계 165개 나라와 38개의 관구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성공회는 지난 135년의 선교 역사와 33년의 독립 관구 역사 안에서 세계 성공회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의 발전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주간 외울 말씀 8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 행복축제 1123

11월 23일(주일) 설립·축성기념일 / 주교님 순방

1부 : 11시 감사성찬례 - 견진성사

2부 : 작은 음악회

전도대상자와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는 날입니다.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추석 명절 추모성찬례 안내

10월 6일(월) 오전 9시 / 성전

■ 알림

◆ 10월 교회위원회

10월 12일(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견진 성사 교육 안내 (견진일 : 11월 23일 주일)

9월 18일(목) ~ 11월 20일(목) 7주간 교육합니다.

교육진행은 신자사역자 5명이 사제와 함께 합니다.

* 견진대상자: 김대식, 장성환, 이요한, 이하린

◆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님 설교

오늘(28일) 11시 성찬례에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조프란시스 신부님께 감사합니다.

◆ 소그룹 모임

오늘(28일) 애찬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 수요 성서공부

10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성가대 워크숍 성료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성가대 워크숍을 제주에서 잘 마쳤습니다. 기도에 감사합니다.

◆ 청년회 학생회 아버지회 풋살 경기

10월 26일(주) 오후 2시 / 경기외고 풋살장

◆ 총사제 회의

9월 30일(화) 오전 11 / 양이재

◆ 남부교무구 위원회

10월 19일(주) 오후 3시 / 수원교회

■ 교우 소식

◆ 생일 축하합니다 한명숙(30일) 허훈제(10월 1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450,000원
권순호/황선숙 권용준 김준우/조장은 박종례
이윤식/백옥경 이진봉/김영란 최용옥/윤희진

■ 주일헌금 120,000원
고미순 권순호 류한신 박선희 박태영 신동홍
이윤식 최순덕 황선숙

■ 감사헌금 100,000원
이에빈 조준행신부 차준섭신부/김승숙(범사)

■ 특별헌금 1,110,000원
임광호/최숙진, 최용옥(성가대 워크숍 후원)
최성문(나눔의집)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계좌〉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위하여

- 전도대상자 작성과 행복축제 1123을 위하여
-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 환대와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전도하면 전도된다 !!)

강홍규 권혜연 김경숙 김경호 김근창 김왕준
김종식 김진호 류지수 박광수 박양호 방수진
배경준 배승범 배시울 배재범 서춘근 서한영
신동훈 윤순자 이동욱 이민녀 이병란 이상미
이상철 이순희 장귀익 전아영 전필만 정연봉
정유정 조형만 최광근 황수인 (34명)

◆ 수험생을 위하여

대입 - 이동우 미카엘, 최하현 다니엘
고입(예고) - 이서현 클라라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김형기
박종례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최숙진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